지역균형 '5극 3특' 체제 집중…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주목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육성〉

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 5극 초광역권,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재화·인구 전국으로 분산…전남도 "특별자치도 국정과제 반영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기자회견…지역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 발전 수단으로 이른바 '5극 3특' 체제 기반의 정책 및 재정 집중을 언급하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강조했는데, 이날 또다시 5극 3특 체제를 거론했다. 5극 3특 체제는 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속 3대 비전 정책공약 중 국가균형발전 관련 첫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간 통합 등의 행정체계 개편도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5극 3특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그걸 몇 개 더 만들자"고 답했다.

이어 "영남은 동남권 또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 수도권, 대구경북권을 합치면 5극이 된다"며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이제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그래서 5극 3특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5극 3특)는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다"며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5극 3특을 기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업 유치,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공언하면서 전남도의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 과제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았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전남도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고 지역 총생산 유출, 연간 8000여명의 청년 이탈 등의 지역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자치권을 강화해 전남도의 잠재력인 에너지, 관광, 농어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재 국회를 계류중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특별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대로라면 특별자치도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경제와 교통 등 정부 중심의 재정, 정책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 체제의 강화와 특별자치도 설치는 무관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호남권 메가시티의 경우 전북이 포함돼 있는 데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이 자치분권의 강화인만큼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남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의 경우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 고흥과 경쟁 중인 도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기관들을 한데(사천)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주 항공청 관련된 시설과 연구 기관을 다 한쪽으로 몰자. 참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확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하다. 좀 머리를 싸매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신임 문화경제부시장 김현성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 내정

김현성

윤범모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보로는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추천됐다.

광주시는 3일 김 후보와 윤 후보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시 디지털보좌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등을 역임한 민생경제·디지털 분야 전문가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준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30여년간 신뢰를 쌓아온 측근으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과 교분이 두텁고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중앙 정치권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대통령실 측 인사와도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비엔날레 대표로 추천된 윤 후보자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립 당시 특별전 기획자이자, 2014년 특별전 전시 감독을 맡은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윤 후보자는 미술 평론가 겸 기획자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시는 AI 총괄 정책자문관에는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를, 빅데이터 총괄 정책자문관에는 나명환 전남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박 자문관은 국내 유일 AI 반도체 유니콘 스타트업을 이끄는 인물로,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을 주도해 왔다. 나 자문관은 빅데이터 기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대통령, 공직사회 '로봇 태권 브이' 비유…선출권력 중요성 강조

조종대 잡은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조직…"해바라기라고 비난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 브이'로 비유하며 선출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종대를 잡은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힘센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석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친윤석열 라인'의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로봇 태권 브이) 조종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하면 공직사회는 주저 앉아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영혼이 없고 해바라기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직업 공무원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 돌리도록 법령상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바라기라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 "우리편만 다 골라낼 수 없고 골라내서 한 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쓰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서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친하다고 배제하면 남는게 없고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업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해수욕장, 주말부터 순차적 개장

서핑·해양치유 등 즐길거리 다채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주말인 오는 5일부터 순차 개장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는 5일 여수 웅천·모사금 해수욕장 등 9곳을 시작으로 해수욕장들이 피서객을 맞는다.

7월 둘째주에는 장흥과 목포, 보성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셋째주에는 함평, 고흥, 해남, 무안, 영광, 진도, 신안이 넷째주엔 완도군 해수욕장이 순차 개장한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27억원을 투입, 시설물 및 안전설비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샤워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감시탑과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했다. 올해는 수상 오토바이와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 3718대와 안전요원 271명을 확보했다. 또 수질 및 백사장 관리를 위한 환경 검사도 끝마쳤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개장 주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여수 웅천, 완도 신지명사십리, 고흥 남열해돋이 등 9개 해수욕장에서는 카누, 카약,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에선 갯벌 생물인 바지락, 장어, 새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는 개장일인 12일 맨발걷기·크로스핏 대회, 해양치유 치맥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특히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실내에서도 피서를 즐길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급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화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